

미래 청소년활동 가치혁신 D-청소년활동 전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 공모분야

구 분		내 용
□부문1	기존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 정책사업 개선·신규 □ 활동·정책 홍보
□부문2	미래형 청소년활동(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요구되는 미래형 청소년활동(사업)

□ 제안명

- WORI (우리) : 오늘의 소통창구 애플리케이션

□ 제안자 : 이은지

□ 제안개요

○ 청소년들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애플리케이션, WORI(우리)를 제안한다. WORI(우리)는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매일 아침 팝업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활동대원들이 뉴스레터, 기사 등을 직접 작성해 올려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및 문해력(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한다.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 19로 개학이 늦춰지고 원격수업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1)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 19로 친구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실질적 문맹이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 문맹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미흡한 상태를 말한다. 2)실제로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읽기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부진학생 비중이 12년 동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3)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에게 '얼굴이 피다'라는 문장을 보여준 결과 '얼굴에 피가 난다'로 해석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해력 수준은 심각하다.

1) 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보호자 290명 조사 결과

2) OECD 각국의 만 15세 이상 학생을 대상, 교육과정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능력을 바탕으로 평가

3) 2020 EBS <다큐 프라임> '다시 학교, 10부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편

○ 필요성

청소년이 가정에만 있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되기도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보통 청소년이 어른의 말을 듣지도 믿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그저 삶의 교훈, 지혜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슷한 환경과 고민을 가진 또래 친구와 주고받는 말 한마디, 즉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시대 등교 수업 중심의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위 세대(we-generation)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청소년에게 디지털 미디어 속 무분별한 정보들이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 글을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흡수할 자세가 필요하다. 각종 디지털 환경 안에서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읽고 쓰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개선·제안방안

○ 적용대상

WORI(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14세부터 19세로 설정한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문해력을 높이고 싶거나 작가, 언론인 등 글을 쓰는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활동대원으로서의 기회를 부여한다.

○ 실시방법 및 내용 (제안서 마지막에 가상 이미지 첨부)

1. 오늘의 메시지 서비스

청소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청소년이다. 자신과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걱정, 고민이 많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마음에 닿는 하루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선 WORI(우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또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질문 (예시: 오늘도 너답게 하루를 보내자!, 난 모르는 거 3번으로 찍으려고ㅎㅎ 등) 을 모집 받는다. 이때 담당자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걸러내고 적절한 메시지만 취합한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지켜야 할 미션 메시지 (예시: 원격수업 때 핸드폰 몇 번 만지나 세보기, 오늘 하늘 10번 쳐다보기 등) 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매일 아침 7시 팝업

알림으로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를 통해 또래 친구가 보낸 질문, 응원, 미션에 스스로 답하면서 자신의 하루의 마음가짐을 되새길 수 있게 된다.

2. WORl(우리) 활동대원

올바른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글을 써보고 읽어보는 활동이 중요하다. WORl(우리) 활동대원은 글 작성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글을 다른 청소년들에게 공유하게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문해력을 높이고 싶은 청소년 또는 작가, 언론인 등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모집한다. 활동대원이 하는 일은 사회 이슈를 소개하는 뉴스레터 및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에세이를 제작, 작성하여 업로드 하는 일이다. 활동대원들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강의를 통해 올바르게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를 토대로 한 달에 1회 이상 뉴스레터 또는 에세이를 작성한다. 작성 후에는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아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활동대원에게는 작성한 글의 개수만큼 일정시간의 봉사시간이 혜택으로 주어진다.

□ 기대효과

1. 청소년 감정적 회복

- 또래 청소년들의 공감 메시지를 통해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외상 극복

2. 위 세대 (we-generation) 로서 공동체 의식 회복

-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책임감 부여
- 개인주의 사회 분위기를 벗어나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마음가짐 구축

3. 청소년 창의력 및 언어능력 향상

- 매일의 메시지 및 창작물을 정독 및 작성하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전문가의 글쓰기 교육을 통해 문해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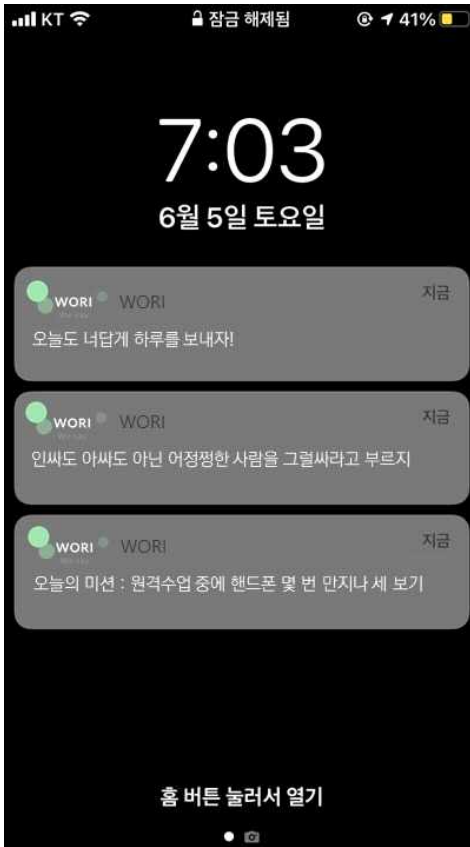
4. 진로 탐색의 기회

- 활동대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작가, 언론인 등의 직업을 체험

5. 일자리 기회 확대

- 애플리케이션 관리 담당자와 교육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

□ 애플리케이션 가상 이미지



▲매일 아침 7시 팝업 알림 전송



▲활동대원의 뉴스레터 및 에세이